

우리나라 長壽者의 生活 및 意識調査에 관한 研究

IV. 長壽者의 過去 家族狀況과 夫婦生活

崔鎮浩·卞在亨·林采喚·梁琮淳·金洙賢¹⁾·金正翰²⁾

李炳昊³⁾·禹順姪⁴⁾·崔善男⁵⁾·卞大錫⁶⁾·金武男⁷⁾

釜山水產大學·¹⁾濟州大學校·²⁾麗水水產大學·³⁾東義大學校

⁴⁾서울女子大學·⁵⁾群山水產專門大學·⁶⁾日本東京大學·⁷⁾釜山女子大學

(1986년 12월 10일 접수)

Investigations on Daily Life and Consciousness of Longevous People in Korea

IV. On the Familial Organization the Marriage Life of Longevous People in the Past

Jin-Ho Choi, Jae-Hyeung Pyeun, Chae-Hwan Rhim, Jong-Soon Yang,
Soo-Hyun Kim¹⁾, Jeung-Han Kim²⁾, Byeong-Ho Lee³⁾, Soon-Im Woo⁴⁾,
Sun-Nam Choe⁵⁾, Dae-Seok Byun⁶⁾ and Mu-Nam Kim⁷⁾

*National Fisheries University of Pusan, ¹⁾Cheju University, ²⁾Yosu Fisheries Technical
College, ³⁾Donggeui University, ⁴⁾Seoul Woman's University, ⁵⁾Kunsan Fisheries Junior
College, ⁶⁾Faculty of Medicine, University of Tokyo, ⁷⁾Pusan Women's University*

(Received December 10, 1986)

Abstract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as a part of the research on the investigation on daily life and consciousness of the longevous people in Korea. Surveys were carried out on their familial organization and the marriage life of longevous people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research. The materials for 121 males and 258 females aged more than 80 were collected and analyzed from June to November 1985.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As for parents' mortality age of longevous people, 48.5% of them showed "both above 70"(20.3%) and/or "either father or mother above 70" (28.2%). Consequently,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between the life span and inherent factor.

2. By the birth order of longevous people, "1st" had the highest figure of 41.2%. and decreased in the order of "2nd"(25.1%) and "3rd"(13.7%). It was observed that the more the birth order of longevous people preceded, the more life span of the aged increased.

3. Three to five persons in the number of brothers and sisters comprised 57.6% of total longevous people surveyed, while 63.9% of them were revealed to have three to six in the number of offsprings.

緒 論

結果 및 考察

人間的 壽命은 遺傳的 要因과 環境的 要因에 따라 그 程度에 差異가 있게 마련이고, 또 壽命은 이에 따라 決定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

지금까지 壽命에 대한 環境的 要因중에서 食生活와 營養에 관한 研究는 비교적 많이 報告되어 있지만,^{2~12)} 遺傳的 要因, 즉 生得的 要因이 長壽에 미치는 影響에 대해서는 별로 報告된 바가 없다.

따라서 著者 등^{13~15)}은 前報에 이어 우리나라 長壽者의 生活 및 意識調査에 관한 研究의 一環으로 長壽者의 過去 家族生活와 夫婦生活에 대해서 調査한 結果를 報告한다. 또 이들 結果를 東京都老人總合研究所(1973)¹⁶⁾ 및 日本老人福祉開發센터(1975)¹⁷⁾에서 調査한 日本 長壽者의 調査果와 比較하였다.

調査의 計劃과 實施

1. 調査의 計劃

前報¹³⁾와 같이 常住人口對比 80才이상 長壽者의 比率이 1.0%이상인 全國 17個長壽地域중에서 12個 地域과 3個 非長壽地域을 포함하여 379名(男子 121名, 女子 258名)을 對象으로 하였다.

2. 調査의 實施

前報¹³⁾와 같은 方法으로 面談用 設問紙를 製作하여 1985年 6月 15日부터 4個月間 著者 등이 직접 現地 踏査하여 長壽者 및 그 家族과 面談·調査하여 統計處理로서 分析 比較하였다.

1. 家系中の 長壽者

人間的 壽命은 遺傳的 要因과 環境的 要因에 의해서 決定된다고 알려져 있는데,¹⁾ 前報¹³⁾에서는 環境的 要因중에서 그 比重이 가장 큰 食生活에 대해서 報告한 바 있지만, 本 研究에서는 壽命에 미치는 遺傳的 要因을 究明하기 위하여 長壽者의 兩親의 死亡年令 및 80才 이상 長壽한 兄弟姉妹의 數를 比較하여 보았다.

Table 1에서 長壽者의 兩親의 死亡年令을 比較하여 보면 『兩親이 70세 이상』이 總調査對象者 379名中の 20.3%(77名)이고, 『片親이 70세 이상』인 경우가 28.2%(107名)로서 長壽者의 兩親이나 片親中에서 70세 이상 長壽한 경우가 全體 調査對象者의 48.5%나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男女間에는 뚜렷한 差異를 발견할 수 없었다.

한편 日本老人福祉開發센터(1975)¹⁷⁾에서 報告한 日本 長壽者의 경우를 比較하여 보면 『兩親이 70세 이상』이 31.9%, 『片親이 70세 이상』이 40.5%로서 양친이나 편친이 70세 이상 장수한 경우가 全體의 72.4%나 되어, 우리나라 長壽者의 48.5%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으나,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男女間에는 有意性있는 差異를 發見할 수 없었다.

따라서 兩親의 死亡年令에서 본다면 壽命과 遺傳的 要因사이에는 밀접한 關係가 있다고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볼 때 兩親이 長壽하면 그 子息도 長壽할 可能性이 높으며, 性格이나 行動 뿐만 아니라 壽命에도 『父傳子傳』이 成立된다고 볼 수 있다. 즉 長壽하는 體質 또는 老化速度를 지연시키는 體質이 있다고 보는 見解로서, 이것은 대부

Table 1. Parents' mortality age of longevous people

Sex		Both above 70	Either father or mother above 70	Both below 70	Unknown	Total
Korea	Total	77(20.3%)	107(28.2%)	185(48.8%)	10(2.6%)	379(100%)
	Male	23(19.0%)	36(29.8%)	59(48.8%)	3(2.5%)	121(100%)
	Female	54(20.9%)	71(27.5%)	126(48.8%)	7(2.7%)	258(100%)
Japan*	Total	52(31.9%)	66(40.5%)	40(24.5%)	5(3.1%)	163(100%)
	Male	27(35.5%)	30(39.5%)	18(23.7%)	1(1.3%)	76(100%)
	Female	25(28.7%)	36(41.4%)	22(25.3%)	4(4.6%)	87(100%)

* The report of longevous people above 80 years of age in Japan (1975) by Japan Gerontological Research and Development

본의 生物 種에 따라 壽命이 決定된다는 사실과 또 壽命이 다른 動物을 比較實驗하여 보면 Mendel의 分離의 法則에 따라 壽命에 差異가 나타나기 때문에 壽命의 決定에는 遺傳의 因子가 關與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2에서 80세 이상 長壽한 兄弟姊妹의 數를 比較하여 보면 男子는 23.1%, 女子는 26.0%로서, 全體적으로 보면 25.1%가 80세 이상 長壽한 兄弟姊妹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豫想보다 약간 낮게 나타난 것은 이들 長壽者들은 世界 2次大戰을 비롯하여 많은 國亂을 당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었다. 그렇지만 80세 이상 長壽한 數가 25.1%나 되는것은 兩親이 70세 이상인 20.3%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서 長壽家系가 認定됨을 알 수 있었다.

2. 出生順位와 長壽

出生順位가 長壽에 어떤 影響을 미치고 있는가

를 추정하기 위하여 長壽者의 出生順位를 調査, 比較하여 보았다(Table 3). 男子 長壽者중 첫번째(長男)가 49.6%로서 가장 많고, 그 다음 두번째(次男)가 21.5%로서, 出生順位 첫째, 둘째가 전체 장수자의 71.1%나 되었으며, 女子 長壽者도 첫번째(長女)가 37.2%로 가장 많고, 그 다음 두번째(次女)가 26.7%로서, 전체 장수자의 63.9%나 차지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장수자중 첫번째가 41.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두번째(25.1%), 세번째(13.7%)의 順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日本老人福祉開發센터(1975)¹⁷⁾에서 報告한 日本의 100%이상 長壽者의 경우를 보면 첫번째가 28.1%로 가장 많았지만, 그 다음은 세번째(19.6%), 두번째(15.9%)의 順으로서 우리나라와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어떻게든 出生順位가 첫번째인 경우가 다같이 가장 長壽率이 높았으며, 또 出生順位가 짝을 수록 長壽한다는 事實은 興

Table 2. The numbers of brothers and sisters above 80 of age

Sex	None	Have	The detail of having				Total
			1	2	3	4 or more than	
Total	284 (74.9%)	95 (25.1%)	71 (74.7%)	16 (16.8%)	4 (4.2%)	4 (4.2%)	379 (100%)
Male	93 (76.9%)	28 (23.1%)	24 (85.7%)	3 (10.7%)	1 (3.6%)	—	121 (100%)
Female	191 (74.0%)	67 (26.0%)	47 (70.1%)	13 (19.4%)	3 (4.5%)	4 (6.0%)	258 (100%)

Table 3. The order of birth of longevous people

Sex	1st	2nd	3rd	4th	5th	6th	7th	8th or further	Unkn-own	Total
Korea Total	156 (41.2%)	95 (25.1%)	52 (13.7%)	32 (8.4%)	16 (4.2%)	7 (1.8%)	8 (2.1%)	2 (0.5%)	11 (2.9%)	379 (100%)
Male	60 (49.6%)	26 (21.5%)	11 (9.1%)	9 (7.4%)	4 (3.3%)	2 (1.7%)	4 (3.3%)	—	5 (4.1%)	121 (100%)
Female	96 (37.2%)	69 (26.7%)	41 (15.9%)	23 (8.9%)	12 (4.7%)	5 (1.9%)	4 (1.6%)	2 (0.8%)	6 (2.3%)	258 (100%)
Japan* Total	60 (28.1%)	34 (15.9%)	42 (19.6%)	16 (7.5%)	18 (8.4%)	72 (0.9%)	4 (1.9%)	2 (0.9%)	36 (16.8%)	214 (100%)
Male	11 (28.2%)	7 (17.9%)	4 (10.3%)	3 (7.7%)	4 (10.3%)	—	2 (5.1%)	—	8 (20.5%)	39 (100%)
Female	49 (28.1%)	27 (15.4%)	38 (21.8%)	13 (7.4%)	14 (8.0%)	2 (1.1%)	2 (1.1%)	2 (1.1%)	28 (16.0%)	175 (100%)

* The report of longevous people above 100 years of age in Japan (1975) by Japan Gerontological Research and Development

Table 4. The numbers of brothers and sisters of longevous people

Sex	None	1	2	3	4	5	6	7	8 or more	Unknown	Total
Korea Total	10(2.6%)	29(7.7%)	41(10.8%)	67(17.7%)	75(19.8%)	76(20.1%)	40(10.6%)	15(4.0%)	15(4.0%)	11(2.9%)	379(100%)
Male	5(4.1%)	16(13.2%)	13(10.7%)	24(19.8%)	17(14.0%)	23(19.0%)	11(9.1%)	5(4.1%)	4(3.3%)	3(2.5%)	121(100%)
Female	5(1.9%)	13(5.0%)	28(10.9%)	43(16.7%)	58(22.5%)	53(20.5%)	29(11.2%)	10(3.9%)	11(4.3%)	8(3.1%)	258(100%)
*Japan Total	10(4.6%)	19(8.9%)	35(16.4%)	35(16.4%)	22(10.3%)	30(14.0%)	18(8.4%)	15(7.0%)	11(5.1%)	19(8.9%)	214(100%)
Male	4(10.3%)	1(2.6%)	6(15.4%)	7(17.9%)	6(15.4%)	4(10.3%)	5(12.8%)	2(5.1%)	1(2.6%)	3(7.6%)	39(100%)
Female	6(3.4%)	18(10.3%)	29(16.6%)	28(16.0%)	16(9.2%)	26(14.9%)	13(7.4%)	13(7.4%)	10(5.7%)	16(9.1%)	175(100%)

* The report of longevous people above 100 years of age in Japan (1975) by Japan Gerontological Research and Development

Table 5. The number of offsprings of longevous people

Sex	None	1	2	3	4	5	6	7	8 or more	Unknown	Total
Korea Total	14(3.7%)	29(7.7%)	30(7.9%)	71(18.7%)	69(18.2%)	62(16.4%)	40(10.6%)	33(8.7%)	28(7.4%)	3(0.8%)	379(100%)
Male	3(2.5%)	6(5.0%)	9(7.4%)	24(19.8%)	24(19.8%)	15(12.4%)	11(9.1%)	13(10.7%)	14(11.6%)	2(1.7%)	121(100%)
Female	11(4.3%)	23(8.9%)	21(8.1%)	47(18.2%)	45(17.4%)	47(18.2%)	29(11.2%)	20(7.8%)	14(5.4%)	1(0.4%)	258(100%)
Japan* Total	18(8.4%)	18(8.4%)	17(7.9%)	22(10.3%)	31(14.5%)	25(11.7%)	15(7.0%)	21(9.8%)	35(16.4%)	12(5.6%)	214(100%)
Male	2(5.1%)	3(7.7%)	1(2.6%)	6(15.4%)	5(12.8%)	4(10.3%)	4(10.3%)	5(12.8%)	7(17.9%)	2(5.1%)	39(100%)
Female	16(9.1%)	15(8.6%)	16(9.1%)	16(9.1%)	26(14.9%)	21(12.0%)	11(6.4%)	16(9.1%)	28(16.0%)	10(5.7%)	175(100%)

* The report of longevous people above 100 years of age in Japan (1975) by Japan Gerontological Research and Development

味있는 것으로서, 하란지(1965)의 “출생순위가 빠를수록 장수할 확률이 높다”고 하는 가설이檢證되었으며, 그 이유에서 양친이 젊고 원기가 왕성할 때 출생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여기에 본인의 의견을 덧붙인다면 첫번째 子息에 대한 父母의 關心이 높다는 東洋的 思考方式이 作用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따라 營養狀態도 그만큼 좋았기 때문에 小兒期의 健康狀態가 良好해서, 그것이 長壽에 影響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3. 兄弟姊妹 및 子女의 數

長壽者의 兄弟姊妹의 數를 比較하여 보면(Table 4), 男子는 3명이 19.8%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5명(19.0%), 4명(14.0%)의 순이었으며, 女子는 4명이 22.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5명(20.5%), 3명(16.7%)의 순이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5명이 20.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4명(19.8%), 3명(17.7%)의 순이었으며, 長壽者의 兄弟姊妹의 數가 3~5명이 전체의 57.6%나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日本老人福祉開發센터(1975)¹⁷⁾에서 報告한 100세 이상 長壽者의 兄弟姊妹의 數를 比較하여 보면 2명(16.4%)과 3명(16.4%)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5명(14.0%), 4명(10.3%)의 순으로서, 우리나라와 거의 類似한 傾向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長壽者의 兄弟姊妹의 數는 2~6명이 전체의 79.0%나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5에서 이들 長壽者의 子女數를 比較하여 보면 男子는 3명(19.8%)과 4명(19.8%)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5명(12.4%)이었으며, 女子는 3명(18.2%)과 5명(18.2%)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4명(17.4%)이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보면 3명이 18.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4명(18.2%), 5명(16.4%), 6명(10.6%)의 순이었으며 子女數가 3~6명이 전체의 63.9%나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日本老人福祉開發센터(1975)¹⁷⁾에서 報告한 100세 이상 長壽者의 子女數를 비교하면 우리나라와는 달리 8명이상이 16.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4명(14.5%), 5명(11.7%), 3명(10.3%)의 순이었다. 우리나라와 日本 長壽者의 子女數의 分布가 多樣하여 長壽와 子女數와의 사이에는 아무런 相關關係가 없었다.

따라서 長壽者의 兄弟姊妹의 數와 子女의 數가 많은 것은 勞動集約的인 經濟構造에서는 不可避한 現象일 뿐만 아니라 產兒制限의 必要性이나 技術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한 歸結이라 하겠다.

4. 長壽와 夫婦生活

Table 6에서 長壽者의 最後配偶子 死亡時의 本人의 年齡을 比較하여 보면 70~79세가 23.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60~69세(19.8%)이며, 80세 이상도 5.3%였으며, 지금도 生存하고 있는 경우가 14.5%나 되었다. 그리고 이들 長壽者중 最後配偶子 死亡時의 本人의 年齡이 70세 이상인

Table 6. The survivor's age at spouse death of longevous people

Sex	Alive	Below 50	51~59	60~69	70~79	Above 80	Unknown	Total	
Korea	Total	55 (14.5%)	51 (13.5%)	61 (16.1%)	75 (19.8%)	89 (23.5%)	20 (5.3%)	28 (7.4%)	379 (100%)
	Male	33 (27.3%)	8 (6.6%)	12 (9.9%)	12 (9.9%)	35 (28.9%)	10 (8.3%)	11 (9.1%)	121 (100%)
	Female	22 (8.5%)	43 (16.7%)	49 (19.0%)	63 (24.4%)	54 (20.9%)	10 (3.9%)	17 (6.6%)	258 (100%)
*Japan	Total	4 (1.9%)	50 (23.4%)	46 (21.5%)	41 (19.2%)	30 (14.0%)	13 (6.1%)	30 (14.0%)	214 (100%)
	Male	4 (10.3%)	4 (10.3%)	7 (17.9%)	3 (7.7%)	8 (20.5%)	8 (20.5%)	5 (12.8%)	39 (100%)
	Female	—	46 (26.3%)	39 (22.3%)	38 (21.7%)	22 (12.6%)	5 (2.9%)	25 (14.3%)	175 (100%)

* The report of longevous people above 100 years of age in Japan (1975) by Japan Gerontological Research and Development

Table 7. The frequency of marriage of longevous people

Sex	Unmarried	Once	2 times	3 times or more	Unknown	Total
Korea Total	2(0.5%)	341(90.0%)	33(8.7%)	1(0.3%)	2(0.5%)	379(100%)
Male	—	93(76.9%)	25(20.7%)	1(0.8%)	2(1.7%)	121(100%)
Female	2(0.7%)	248(96.1%)	8(3.1%)	—	—	258(100%)
Japan* Total	1(0.6%)	132(81.0%)	27(16.6%)	3(1.8%)	—	163(100%)
Male	—	57(75.0%)	17(22.4%)	2(2.6%)	—	76(100%)
Female	1(1.1%)	75(86.2%)	10(11.5%)	1(1.1%)	—	87(100%)

* The report of longevous people above 80 years of age in Japan (1975) by Japan Gerontological Research and Development

경우가 전체의 43.3%나 차지하고 있어, 아주 多福한 夫婦生活을 해왔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日本老人福祉開發센터(1975)¹⁷⁾에서 報告한 100세 이상 長壽者의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50세 이하가 23.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51~59세(21.5%), 60~69세(19.2%), 70~79세(14.0%)의 순이었다. 우리나라와 日本 長壽者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日本이 世界 2次大戰 當事國이었으므로, 不意의 死亡者가 많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어떻든 長壽者의 夫婦間의 長壽率이 意外로 상당히 높다는 것은 興味있는 事實로서, 『夫婦는 얼굴이 닳는다』고 하는 俗談처럼 夫婦間의 生得의 要因, 즉 遺傳的 素質은 다를 지라도 오랜 세월동안 같은 住居條件과 食生活 등 環境的 要因이 같기 때문에 夫婦가 같이 長壽할 可能性이 있다는 것을 立證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Table 7에서 이들 長壽者의 結婚回數를 比較하면 거의 대부분의 長壽者가 1회 또는 2회 結婚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1회가 90.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2회로 8.7%에 지나지 않았다. 男女別로 比較하여 보면 男子는 1회가 76.9%, 2회가 20.7%인 반면 女子는 1회가 96.1%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2회는 3.1%에 불과했다. 이러한 差異는 그 當時 男女間의 社會的 因襲 때문으로 생각되었다.

한편 日本老人福祉開發센터(1975)¹⁷⁾에서 報告한 日本 長壽者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거의 類似한 傾向을 나타내고 있었다. 男子는 1회가 75.0%, 2회가 22.4%였고, 女子는 1회가 86.2%, 2회가 11.5%였으며, 전체적으로 보면 1회가 81.0%,

2회가 16.6%로서 전체 장수자의 97.6%를 차지하고 있었다.

어떻든 우리나라와 日本의 長壽者들의 99.4~99.5%, 즉 거의 전부가 結婚生活을 하고 있었으며, 結婚回數도 1회가 韓國은 90.0%, 日本은 81.0%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2회(再婦)도 각각 8.7% 및 16.6%나 차지하고 있었다.

Fig.1에서 長壽者 夫婦의 結婚生活을 比較하여 보면 結婚生活이 『원만했다』고 대답한 것이 전체의 87.6%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자주 다투었다』가 6.1%, 『벌거헸다』가 2.1%에 불과하였다. 또 男女別로 比較하여 보면 『원만했다』고 대답한 것이 남자가 90.1%, 여자가 86.4%로서, 대부분의 장수자들이 夫婦生活이 원만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Fig.2에서 『다시 태어난다면 누구나 결혼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본래의 배우자』라고 대답한 사람이 남자는 62.0%, 여자는 52.7%로서, 전체적으로는 55.7%가 『본래의 배우자』를 선택하겠다고 하였으며, 여기에 『모르겠다』고 대답한 26.9%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전체 장수자의 82.6%가 夫婦生活에 満足度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한가지 흥미있는 사실은 『다른 사람』과 結婚하겠다는 사람은 男子가 10.7%로 높은 반면 女子는 3.9%에 不遇했으며, 『결혼하지 않겠다』고 대답한 사람은 女子가 13.6%로 높은 반면 男子는 6.6%로 낮았다.

이상의 結果에서 본다면 원만한 夫婦生活은 生體의 리듬을 正常化시키고, 生活에 活力을 줄 뿐만 아니라 各種 스트레스 解消에도 도움을 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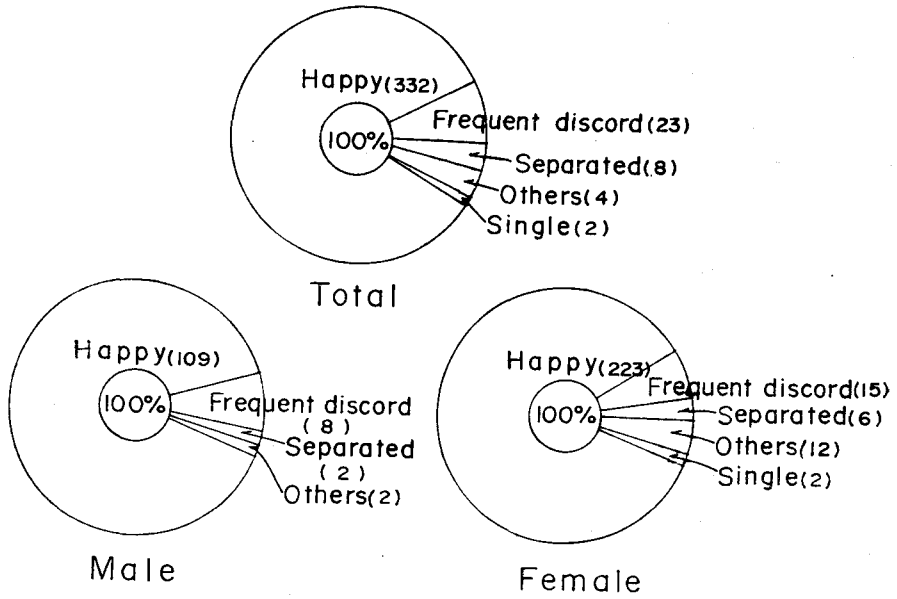


Fig. 1. Marriage life of longevous peo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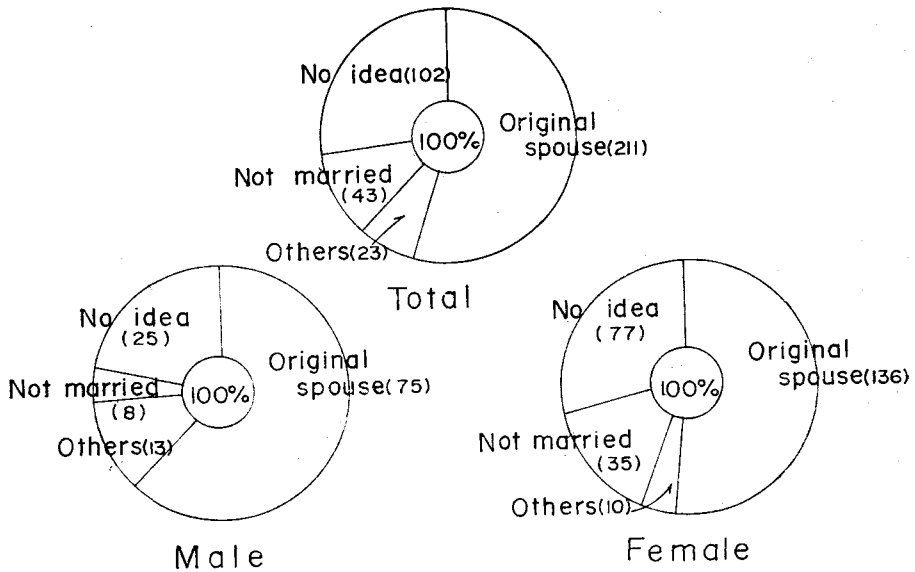


Fig. 2. The partner of marriage in case of rebirth

있기 때문에 精神的 健康을 위해서도 아주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원만한 夫婦生活을 하는 금실좋은 夫婦는 長壽할 수 있다고 判斷되었다.

要 約

우리나라 長壽者의 生活 및 意識調査研究의 一環으로, 우리나라 長壽者의 過去 家族狀況과 夫婦生活에 대해서 調査·比較한 結果는 다음과 같다.

1. 長壽者의 兩親의 死亡年齡을 比較하여 보면 『兩親이 70세 이상』이 전체의 20.3%이고, 『片親이 70세 이상』인 경우가 28.2%로서, 兩親이나 片親中에서 70세이상 長壽한 경우가 전체의 48.5%나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壽命과 遺傳의 要因사이에는 깊은 相關이 있음을 나타냈다.

2. 長壽者의 出生順位를 比較하여 보면 『첫번째』가 41.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두번째』(25.1%), 『세번째』(13.7%)의 順으로 감소하고 있었다. 따라서 出生順位가 빠르면 빠를수록 長壽하는 傾向으로 나타났다.

3. 長壽者의 兄弟姊妹의 數는 3~5명이 전체 장수자의 57.6%나 차지하고 있었으며, 子女의 數는 3~6명이 전체 장수자의 69.9%나 차지하고 있었다.

4. 長壽者의 結婚回數는 『1回』가 90.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2回』(8.7%)로서,全體 長壽者의 98.7%가 1回 또는 2回였으며, 長壽者의 結婚生活을 比較하여 보면, 『원만했다』가 전체의 87.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長壽者의 夫婦生活이 대단히 원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參 考 文 獻

1. 崔鎮浩·曹秀悅·許鳳烈: 特殊營養學, (敎文社 發刊) (1985).
2. 小柳達男·吉川令子·宮仕くに子: 榮養と食糧, 22(3), 148, (1966).
3. 鈴木秀雄: 榮養學雜誌, 24(4), 120, (1966).
4. 小柳達男·武田三惠子·桜井和人: 榮養と食糧, 22(3), 144 (1968).
5. 吉川政己: 榮養と食糧, 30(6), 345 (1977).
6. 柳田美子·山本和子·千葉裕典·米林喜男: 榮養學雜誌, 31(6), 254 (1973).
7. 中川一郎: 榮養學雜誌, 37(2), 49 (1979).
8. Pelcovitis, T.: *J. Am. Dietet. Assn.* 60, 297 (1972).
9. Holmes, D.: *J. Am. Dietet. Assn.* 60, 301 (1972).
10. Lyons, J.S. & Trulson, M.: *J. Geront.* 11, 67 (1956).
11. Beeuwkes, A.M.: *J. Am. Dietet. Assn.* 37, 215 (1960).
12. Chebotaryov, D.F. and Sachuk, N.N.: Academy of Medical Sciences, U.S.S.R., 435 (1963).
13. 崔鎮浩 外 9人: 韓國食文化學會誌, 1(2), 116 (1986).
14. 崔鎮浩 外 9人: 上同 (II), 韓國食文化學會誌, 1(3), 183 (1986).
15. 崔鎮浩 外 9人: 上同 (III), 韓國食文化學會, 투고중.
16. 東京都老人總合研究所: 100歲老人調査報告書, (1973).
17. 日本老人福祉開發센터: 長壽者의 總合的研究報告書, (1975).